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의 말이 부추기는 파괴적 광기를 '맥베스'보다 더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 맥베스는 인도와도 안 바뀔다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다. 요즘 같은 시절에 다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맥베스는 짧은 작품이지만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의 덧과 본질을 놀랍도록 날카롭게 파헤치며 우리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 맥베스는 던진 왕의 총살한 신 하로서 왕의 명을 받고 절친인 뱅고 장군과 함께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의 마녀를 만나서 놀라운 예언을 듣는다. 맥베스가 영주가 되고 곧 스코틀랜드 왕이 된다는 것이다.

"장차 왕이 되실 맥베스 만만세!"라는 마녀들의 예언은 맥베스를 사로잡았다. 그는 예언의 뜻에 걸린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맥베스가 처음부터 악인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로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반란 세력을 막는 자신의 임무에 성실했다. 하지만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대로 정작 왕이 영주의 작위를 하사하자 예언을 믿기 시작한다. "장차 왕이 되실

달콤한 욕망 속에는 전갈이 산다

분"이라는 이 한마디가 맥베스를 압도한 것이다. 맥베스는 예언을 부인에게 말하고, 부인은 단호하게 왕의 살해를 설득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칠 테니까요.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제 손으로 제거할게요"라고 말한다. 심지어 "겉으로는 청순한 한 떨기 꽃잎처럼 보이되, 속에는 뱀을 숨기세요"라는 술수까지 건넨다. 자신이 왕비가 되는 길은 남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이 어찌 모르겠는가. 결국 맥베스는 왕을 초대해서 '독사'처럼 살해하고는 그 죄는 경비병들에게 뒤집어씌운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맥베스와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들의 광기 가득한 변화는 맥베스가 마녀들의 예언을 들은 후부터, 부인은 맥베스가 예언을 전해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마녀들의 예언에 맥베스의 무의식 속 욕망이 깨어난 것일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채 어딘가에 깊이 숨겨졌던 욕망이 마녀의 입을 통해서 공표되는 순간 맥베스는 자신의 욕망을 필연의 운명이라고 믿은 것일까? 또 맥베스의 부인은 어떤가. 남편에게 듣기 전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강렬한 욕망, '왕비'라는 환상에 휩싸인다. 무의식적 욕망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현실적 요구가 되어 우리 의의식과 행위와 삶을 지배한다. 마녀들의 달콤한 예언은 말이 된 순간부터 맥베스와 부인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즉, '짓밟은 그들의 발자국이 맥베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그를 허물기 시작하자' 맥베스 부부는 욕망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은 노

예가 된 것이다

욕망을 추구할수록 맥베스는 명예롭고 웅망한 장군에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인 뱅고, 그리고 자신마저 죽이는 파국과 맞닥뜨린다. 이 불행과 고통을 "내 마음은 전갈들로 가득 차 있소"라는 표현으로 고백한다. 왕좌를 얻은 마음이 만족 대신 전갈에게 고통받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맥베스의 부인 역시 욕망대로 왕비가 되었지만 "바라는 것은 얻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니, 모든 걸 바쳤으나 얻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삶을 포기한다.

이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맥베스는 "인생이란 걸어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잠시 무대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거나 종중거리고 돌아다니지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욕망과 탐욕에 휘둘린 자신이 바로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 천치'임을 고백한다. 욕망에 지배당할 때 맥베스가 그랬듯이 쉽게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요,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하고 왜곡한다.

누구나 자신의 어딘가에 맥베스의 모습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문제는 욕망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태도다. 맥베스와 부인이 마녀들의 예언에 홀리듯, 사고와 판단이 무너진 자리에 공허하고 부당하며 어리석은 욕망만 자란다. 그리고 이 욕망의 끝에는 전갈의 고통뿐이다. 욕망은 결코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원손 중지 끝에 피 한 방울이 이슬처럼 맺혔다. 주삿바늘이 찌르자마자 툭 튀어나온 피가 시뻘뻘. 채혈을 마친 그 피는 금세 먹빛으로 바뀐다.

멀리서 빨간 풍선이나 빨간 우체통, 빨간색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라는 나는 현혈하는 시간보다 따끔한 채혈 순간이 더 두렵다. 그 두근거림은 지금도 어쩔 수 없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피 피 피!"

1980년 5월 17일 아침도 그랬다. 대학생들을 끌고 지 쫓아가서 군복을 휘두르자 달아나던 대학생 머리에서 분수처럼 붉은 피가 솟아났다. 머리를 감싸고 쓰러진 그를 또 다른 군인들이 군화발로 세차게 짓밟았다. 등골길 1번 시내버스에서 바라본 이른 아침 참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 옷과 도로 여기저기 붉은 피가 남자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잔혹함이었다.

무서웠다. 그 핏방울은 그를 의도했는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한발도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교실

피 한 방울의 무게

에 도착하니 다른 친구들도 보았다며 웅성대고 있었다.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모두 분노하며 단단히 뭉쳤다. 교실마다 격결상을 뒤로 밀치고 긴급 토론을 한 후 시내로 진입하자고 결의했다. 총검을 앞세운 그들과 싸울 정의감이 훨씬 강했다. 아쉽게도 눈치를 챈 학교에서 일찍 하교하는 바람에 우리 대오는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다섯개 지난 21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손수레에 실려 터미널에서 금남로로 온 두 구의 시신, 그 시신을 덮고 있던 태극기에 번진 피, 그 선혈이 선졌했다. 그 피는 시민을 또다시 흔들며 깨웠다. 붉다 못해 검게 변해버린 피 한 방울, 우리 그 잔혹함에 또 한 번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 핏방 태극기를 흔들며 분연히 연대의 거리로 나섰다. 44년 전의 일이다.

간혹 난 그날의 오월과 지금 오월을 비교해 보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만약 그때처럼 시민들에게 발표하라는 명을 내린다면 어떻게. 지금 군인들은 당연히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설사 그 만행에 동참했다라도 요즘 군인들은 거리낌 없이 양심선언에 앞장설 것이다.

명령보다 더 우선인 것이 법이고 정의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게 바로 44년 전 광주로 인해 우리가 새로 만든 법치이자 패러다임이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피! 피! 피!"

오월 그날은 뜨겁게 피가 끓었다. 최전선에서 싸운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은 돌을 날려주었고, 아주머니들

은 주먹밥을 해주었다. 여학생들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숨겨주었다. 현혈해 달라는 말에 시민들은 줄을 섰다.

도청 대학생의 머리에서 터져 나온 피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어 시민의 가슴으로 번지고 세 방울로 금남로와 상무관으로 흘러내려 도시 전체를 도도한 해방구로 붉게 물들였다.

그 5월 피 한 방울은 제단에 바친 헌신이나 굴종의 피가 아니었다. 5월이면 해마다 부활한 피였으며, 도청과 금남로에서 그리고 서울과 대전과 부산, 곳곳으로 울려 퍼진 피였다.

그 피 한 방울은 일어섬과 맞섬의 피였으며 6월 항쟁의 의로움을 향한 울골은 나아갑의 피였다. 어둠을 물리친 6·29 항복을 받아낸 새로운 밝음을 여는 그런 역사를 바꾼 생피였다.

꽃들이 만발한 5월, 살만한 세상이 되었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늘이 적지 않다. 오월은 그래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휴방물에 쓰러져간 부하 한 명의 피 한 방울일지라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피 한 방울의 무게를 본다.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아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의로움을 실천하는 수많은 의인의 가슴으로 이어져 핀 피다. 그 뿌리는 5월 정신, 피 한 방울의 정신이 아닐까. 오월의 피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값지다.

올해 스승의 날은 더 부끄럽다

게 아닌가? 나를 되돌아 본다. '이렇게 나쁜 제자로 살고 있구나' 한참을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나를 되돌아 보았다. 많이 부족한 제자를 너무나 지혜롭게 살피주시고 챙겨 주신 그 많은 일들이 인자하신 모습과 함께 한참을 머물다가 간다. 그러다가 또다른 여러 날들을 꼬리를 물고 되돌아 보게 된다.

되돌아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 날도 내 손주들에게조차 너그럽고 본분올만한 할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버이 날에는 자식들에게서 이런저런 대접을 많이 받으면서도 부모로서 배움목이 되지를 못하고 살고 있음에 부끄러웠다. 성년의 날도 있으니 이 또한 나를 의미 있다. 나는 아직도 미숙한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부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솔직히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한 끼를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건데 ~, 참 나는 부족한 남편임이 분명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스승의 날에는 참으로 더 부끄럽다. 노 스승에게서 받은 건강식품은 더 없이 부끄럽게 하였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별로 잘나지도 못한 제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보내주시는 노 교수님의 눈물겨운 일은 내가 더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한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성인인 한 사람에게 많은 스승들이 지나 갔을 테다. 그 중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스승도 물론 있을 것이다. 스승들도 인간이기에

세속적인 면면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를 있게한 스승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 보면 특별한 스승들이 계시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매우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미물이다. 부모님의 보살핌도 중요하고 사회의 여러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생존하고 성장하게 된다. 미성숙한 존재는 독립하여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래가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더 없이 부끄럽다. 어떤 반성을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한 사람의 제자로서도 소중한 아이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교직 생활도 반성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떠오른다. 나를 기억하고 있을 많은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스승이었을까? 아니 스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생활하고 지냈을까? 나의 교직생활을 반추해 볼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다.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좀더 너그럽게 타이를 걸, 더 지혜롭게 진로를 탐색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걸, 그렇지 못한 제자들이 떠오르면 그 뎨 왜 그랬을까? 그럴 줄을 왜 몰랐을까?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고 후회하게 될 줄을 왜 몰랐을까? 그러나 어쩌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자.

나의 교직생활을 반성한다. 지금 세상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스승님들의 강령과 평화를 기원하며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주지 못한 제자들의 앞날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어쨌든 올 스승의 날에는 더 많이 부끄럽다.

社說

분양 참패 GS건설 '자이' ...추락 이유 있었네

국내 건설 도급 순위 5위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브랜드 가치 하락세가 심각치 않다. 잇따른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고분양가 논란도 한 몫 하고 있다.

GS건설은 자이를 통해 아파트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지난해 초 서울 중구 신축아파트에서 필로티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달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중국산 유리 사용에 신뢰를 잃었다.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도 브랜드 가치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옛 남대문 캠퍼스 부지에 짓는 '상무센트럴자이' 분양가를 평당 3000만원으로 책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 역대 최고 분양가이자 당시 광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1300만원이나 비싸 미분양이 속

출했다. 이번에는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인 '운암자이포레나'가 평당 2300만원대에 분양했다가 참패했다. 84㎡의 경우 7억2000만원대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억5000만원이나 비싸기 때문인데 브랜드만 믿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눈감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자이 브랜드 가치 하락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고급화를 이유로 분양가는 턱없이 높게 받았면서도 여전히나 없는 부실시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GS건설은 부실시공이 드러날 때마다 사후약방문 형식의 대처에만 급급해왔다. 한번 무너진 브랜드 가치를 다시 끌어 올리려면 재 창업의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아파트의 부실시공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브랜드만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퇴출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다.

'도심 흉물' 방치 건물 정비계획 현실화돼야

오래 골칫거리였던 광주 도심의 장기 방치 건물들이 재정비 된다. '도심 흉물'을 위해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축주가 부도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도 올해 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반면 1996년 흥복학원인 학교를 짓겠다고 추진했던 삼가동 건물은 교육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이번 정비 계획에서 빠졌다.

오랫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혀왔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던 방치 건물에 대한 대책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정비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실질적 유도책이 없다면 계속 방치 상태에 머무를 수 있고, 자금난 등으로 또 다른 방치 건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대안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건물,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 서구 능성동 서구청 맞은편 철골 건물, 광산구 삼가동 건물 등 총 4곳이다.

건물주가 의대 유치를 위해 짓다 1995년 공사를 중단한 이래 방치된 옛 서진병원 건물은 2025년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또 2007년 공사를 중단한 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17년째 방치되고 있

는 능성동 철골 건물은 소유권 분쟁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축주가 부도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도 올해 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반면 1996년 흥복학원인 학교를 짓겠다고 추진했던 삼가동 건물은 교육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이번 정비 계획에서 빠졌다.

오랫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혀왔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던 방치 건물에 대한 대책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정비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실질적 유도책이 없다면 계속 방치 상태에 머무를 수 있고, 자금난 등으로 또 다른 방치 건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대안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기억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1904-1944)는 생전에 주옥 같은 시를 썼다. '광야(曠野)는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가운데 하나다. 1945년 해방 이후 동성 이원조에 의해 '자유신문'에 발표됐으며 이육사의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의열단 단원이기도 했던 이육사의 유일한 비망곡 '광야'라는 시에는 민족의 비극과 저항의지가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어조로 형상화돼 있다. 이원록이라는 본명 대신 이육사로 불리게 된 데는 형무소 복역 당시 수인번호가 '264'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광야'하면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모진 역경과 고난을 감내했던 그를 일컬어 '인동초'라 한다. 얼마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김대중 생애를 조명하는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가 개막했다.

이육사의 '광야'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다시 광야에서'는 다양한 생각거리를 주는 기획전이다. 아득히 너른 들을 뜻하는 '광야'는 고통과 고난, 인고를 함의한다. 5·18 주간에 보게 되는 김대중의 일대기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일제 강점기 울골은 민족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했던 이육사와 사형선고라는 역경을 딛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은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는 이육사 탄생 120주년,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고난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각기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고, '행동하는 양심'을 견지했던 이들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한다. 누구에게나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막막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나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혹여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머잖아 실현될 꿈을 생각하며 힘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장skypark@

기고



박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보내는 사람을 알 수 없는 택배가 왔다. 당황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히말라야 청정 건강 식품이다. 내가 주문한 기억도 없다. 건강보조 식품이니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나서 먹어야 될 것 같았다. 혹시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닌지 수취인 주소를 다시 점검해 보았다.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니었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먹지를 못하고 한참을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았지만 누가 보낸 선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택배 회사로 전화를 하였다. 누가 보낸 택배인지를 알고 싶다 했다. 개인 정보이니 쉽게 알려 줄 수가 없다는 답이 왔다. 대신 보내신 분에게 택배회사에서 연락을 하여 전화를 주게 하였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다. 깜짝 놀랐다. 전화가 너머에서 들리는 안경된 음성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당신 건강이 늘 걱정이 되어서 생각하다가 이걸 보내니 잘 챙겨 드시게" 새파란 새내기 대학생 때부터 말을 놓지 않으시더니 지금은 당신이라 하신다.

뭐가 많이 잘못 된게 분명하다. 노 교수님은 백수(白壽)를 눈앞에 두고 계신다. 내가 챙겨 드려야 마땅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지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